

글로벌 경제위기, 한국경제 전망

與野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경기 회복 아직은… 지방규제 풀고 투자늘려야”



한나리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1956년생 ▲경동고, 서울대 경영대 ▲행정 고시 24회 ▲16·17·18대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한나리당 대변인, 여의도연구소장

세계 박람회·새만금 개발 등

선도프로젝트 정부 지원

호남발전 최선 다 할 것

”

경과 51조6천억원 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건전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김효석=사상 최대 28조9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

-증시 회복에 환율이 하락하고 각종 경지선행지수 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국내 경제가 바닥을 찾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전반적으로 국내 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사정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광공업, 일부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이어서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혼재된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향방에 대해 낙관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김효석=국내 경기가 급격히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어느 정도 진정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가 바닥을 찾다는 판단은 성급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됐다가 하락세가 문화될 때 기저효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징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 경기가 언제쯤 풀릴 것으로 보나.

▲임태희=현재 판단하기는 어렵다.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경제의 회복시키는 세계경제의 회복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대규모 기업도산이나 금융부실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경제체질이 견실하고, 수출 상품 및 시장이 잘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효석=지금으로선 전망이 어렵다.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릴 수도 있고, 늦으면 내년 말까지 침체가 지속될 수도 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몇 개월간 경험해온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이나 실물경제의 급격한 주락 같은 사태는 앞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U자형 회복이나 아니면 L자형 침체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슈퍼 추경에 대한 논란이 크다.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임태희=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절실히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건전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김효석=사상 최대 28조9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